

두산아트랩 공연 2024 ⑦

## 문병재

#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

### 연극

321(목)~323(토) 목금 8시 / 토 3시

쇼케이스 110분(예정)

\*아티스트 토크 3.23(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ch/7508

### 작·연출노트

2019년 봄 누군가에게 “넌 그게 재밌어?” 라고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미안. 재밌을 줄 알았는데..”라고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근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지? 기분 나쁘네’ 목 끝까지 나오던 말을 속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영영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고, 봄날의 대화가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제 유머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유머도 저를 들여다봅니다. 몰랐는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합니다. 그렇게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는 시작됩니다.

제 공연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도, 혹은 소문으로만, 혹은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배우로 활동을 하며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연출을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인 <픽미업>을 제외하고는 저는 저의 이야기, 혹은 저와 관련되어 부유하는 이야기로 연극을 만듭니다. 혹자는 “문병재 장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묻지만, 네. 그럴 의도는 없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배우로서 다큐멘터리 연극을 만들며 글도 썼습니다. 그 글들은 저의 사실, 경험, 성찰에서 비롯된 희망, 결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을 위해서 가끔 거짓말을 했던 적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사실처럼 말하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의 문병재와 무대 밖의 문병재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단하지만 이제는 나태하고 둔한 문병재가 연극의 방향성과 현실의 방향성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리미.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는 제법 긴! 이야기입니다. 유머는 문병재의 삶의 궤를 함께하는 주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과 가벼운 마음으로 이 공연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무수히 압축되었음에도 적어도 이 정도의 분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공지보다 러닝타임이 많이 길어졌지요. 죄송합니다. 저의 욕심이 동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유머는 저에게 너무나 주요한 부분이기엔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연이 끝나면 저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요?

#### 창작집단 특치다

연극 <가족극 농사왕>

<경쟁턴> <중고거래 사기패턴으로 바라보는 인간, 신뢰의 영역>

<미카미 시운> <연출의 탄생> <픽미업> 외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관객 설문 바로가기](#)

작, 연출, 출연 문병재

출연 남기용, 김민수, 박희찬

드라마터그/음악감독 채군

조연출/음향 오퍼레이터 박지윤

조명 김지우

무대 조경훈

영상 김동환

드럼 한현희

피아노 고은별

기타 류준상

움직임 자문 이소영

음향 디자이너 조준식

음향 엔지니어 유기순

조명 오퍼레이터 박세련

무대감독 김영주

무대크루 엄성현, 서지원, 이소희, 김수진

조명크루 김남수, 차영원, 이현동, 임민영

출연 게스트 문복식, 박유진, 나경민

영상 게스트 이지안, 이준서

목소리 도움 이다혜, 이진경, 정대진

도움 천안 정신분석 상담센터

공연 사진 촬영 김신중

[두산아트랩 공연 2025 공모 안내]

일정 2024.6.10~7.10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뒷 장에 <2024년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

유머영역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유머영역

:)

1. (물음) 남자의 마지막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병재가 웃기기 위해 한 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사 안 합니다. 나가세요.
- ② 저기 신분증 검사 좀 할게요.
- ③ 아니, 무슨 대낮부터 술을 마셔요?
- ④ 호롤롤롤~

2. (물음) 여자의 마지막 말에 병재가 웃은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갑자기 다른 웃긴 생각이 나서
- ② 억울하게 뺨을 맞고 온 상황이 상상돼서
- ③ 신발을 한 짝만 신고 돌아다니는 게 웃겨서
- ④ 선배를 조롱해서

3. (물음) 마지막 남자의 유머에 병재가 반응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크게 웃는다.
- ② 하품을 한다.
- ③ 반응을 하지 않는다.
- ④ 삼차! 삼차!

4. (물음) 병재가 밖으로 나가서 친구에게 한 말로 옳은 것은?

- ① 자기도 떠들었으면서 우리한테만 그러냐?
- ②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네~
- ③ 열받네! 콧 그냥 한 대 쳐버려?
- ④ 아니, 범위 알려주면 뭐해줄 거냐고~